

# 국외출장보고서 : 핀란드 및 영국

## 1. 국외출장목적

- 여성의 고용활성화 정책 사례연구
  - － 핀란드는 사민주의국가로 여성고용률이 높은 나라
  - － 영국은 복지개혁(New-Dealr)을 통해 최근 10여년동안 여성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나라이나 최근 복지개혁(universal credit)으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나라
- 일-가정 양립정책의 현황과 최근 개혁 사례연구

## 2. 국외 출장 개요

- 출장자 : 여유진
- 장소 : 핀란드 헬싱키, 영국 런던
- 방문기관
  - － 핀란드: University of Helsinki, Institute of Population Research
  - － 영국: IFS(Institute for Fiscal Studies)
- 일정 : 2013년 8월 25일(일) ~ 2013년 9월 1일(일)
- 세부일정

출장일정			
년/월/일	행선지	방문기관/면담자	회의주제
2013/8/25	서울→헬싱키	헬싱키 도착	2013/8/25
2013/8/26	헬싱키	헬싱키대학/Mira Kalalahti, Janne Varjo	핀란드 교육정책 및 제도의 사회경제적 성과와 최근 변화
2013/8/27	헬싱키	Institute of Population	Finnish Fertility and Family

출장일정			
년/월/일	행선지	방문기관/면담자	회의주제
		Research/Director, Docen Anna Rotkirch	Policies
2013/8/27	헬싱키	헬싱키대학/장수명교수님( 한국교원대 교수)	핀란드의 전반적인 경 제 · 고용상황과 여성의 삶
2013/8/28	런던	런던 도착	
2012/8/29	런던	Institute for Fiscal Studies/James Browne	영국 복지개혁(universal Creidt)이 가족과 여성에 미칠 영향
2013/8/30	런던	김기태(버밍엄대학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최근 영국 복지개혁 내용 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2013/8/31	런던→서울	서울 도착	

### 3. 국외출장 주요 개요

#### 가. 핀란드 여성노동시장과 가족정책의 특징

- 인터뷰: Director, Docent Anna Rotkirch, 장수명교수(한국교원대, 핀란드에서 안식년 중)
- 핀란드는 한국과 달리 출산율도 OECD국가 중 비교적 높은 편, 게다가 여성 고용율도 상당히 높음..
  - 수십년 동안 출산율이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음. 2000년대 들어 출산율이 오히려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30대에서 50대까지의 피크타임시기에는 거의 90%에 육박.. 거의 대부분의 여성이 결혼이나 아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
  - 핀란드는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이상적 자녀 수를 3명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프랑스와 함께).. 40% 이상이 3명 이상의 자녀를 갖는것이 이상적이라고 응답(Eurobarometer 2006).
  - 현실에서는 자녀출산이 양극화.. 아이없는 여성과 3명 이상의 아동을 가진 여성이 상대적으로 증가.. 2007년에 45세 여성: 자녀 없는 여성이 약 18%, 3명인 여성이 약 21%, 4명인 여성도 약 6%에 이룸.. 1990년과 1998년에 비해 자녀가 1, 2명인 여성은 줄고, 0명과 3명 이상인 여성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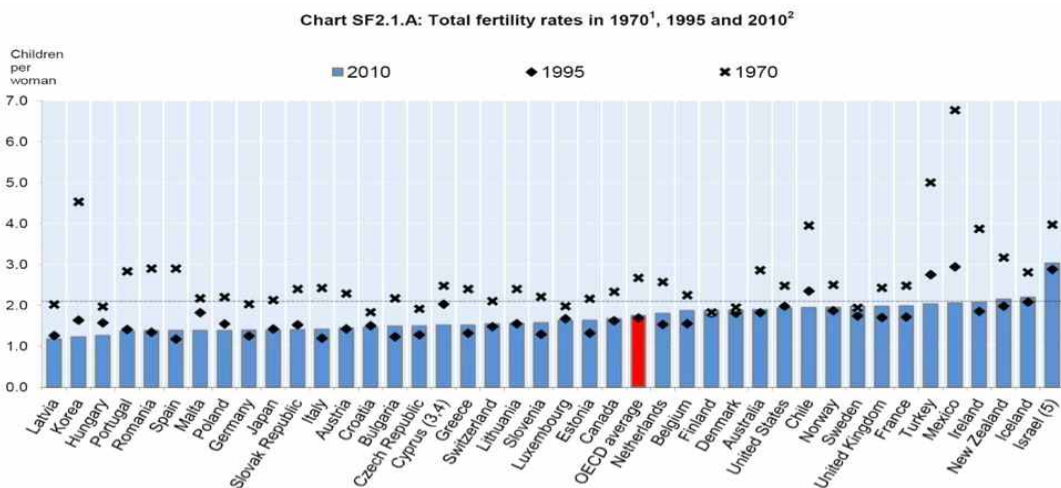


Chart.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by age group in Finland



□ 핀란드 가족정책의 특징

- 가족급여들은 아동을 가진 모든 가족(혼인여부, 소득이나 아동의 수와 연계되지 않음)에게 유효
- 개인별 조세 및 수급(가족단위가 아님)
-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유형의 급여가 존재
- 가족정책의 목표는 젠더 평등
- 가족정책에서 여성의 임금에 대한 지원이 하나의 목표로 작동.

□ 핀란드에서 정책 수급 특징

- 관대한 보조
  - 10개월의 부모휴가(임금의 약 2/3)
  - 아동이 3세가 될때까지 양육수당(300-500유로/월)
  - 아동이 17세가 될때까지 아동급여(100+유로/월)
- 값싼 데이케어에 대한 주관적 권리
  - 부모는 급식료를 포함해서 월 0-200유로 지불
- 무료 학교 및 고등교육
  - 대부분 7-9세 아동들에 대해 방과후 케어

- 대학은 무료

○ 육아휴직

- 1990년 이래 지역 데이케어에 등록하지 않은 3세 미만 아동을 가진 부모는 육아휴직. 수당은 314유로/월(과세), +60-94유로
- 이러한 관대한 육아휴직은 3세 미만 아동은 부모가 직접 케어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경험적·학술적 연구 결과에 의한 것
- 실제로 핀란드에서 1-2세 아동의 데이케어센터 등록률은 40% 내외로, 같은 노르딕 국가로 분류되는 스웨덴과 덴마크의 70% 내외, 덴마크의 90% 내외에 비해 매우 낮음.

□ 정책 결과

○ 대부분의 여성들이 전일제 일자리, 출산율은 약 1.9

- 핀란드의 파트타임 여성 근로자 비율은 15% 내외로 다른 노르딕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편
- 일-가족 양립정책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해 보임(노르딕국가들의 출산율이 대체로 OECD 평균 이상)

○ 아동

- 90% 이상의 0-1세 아동은 부모가 양육
- 약 60%의 0-3세 아동은 부모나 민간에서 양육, 나머지는 지역 데이케어센터.

○ 편모는 큰 사회적 스티그마나 위협이 없음.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편모의 빈곤율이 더 높아짐.

○ 아동의 수는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가 없음

○ 부모휴가의 성평등적 사용의 증가로 인해 0-6세 아동을 가진 가족에서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점차 증가, 반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 기타

○ 한부모 비율: 20% 정도. 한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 어떤 사회적, 기업적 편견도 없는 편.

○ 핀란드는 과학적인 결과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향: 예) 3세 이하의 자녀

의 경우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것이 더 나음. 이후에는 공동육아가 더 나은 결과?

- 대부분의 여성이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일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 이는 교육의 힘과 관련
- M자형이 없는 것은 아동이 3세 이하인 여성 중 상당수가 육아휴직의 방식으로 아동을 돌보기 때문, 즉 실질적으로는 M자형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휴직하는 방식.. 휴직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이 당연하게 생각.. 스웨덴, 덴마크 등 같은 북유럽 국가와도 다소 차이가 나는 점은 3세 미만의 아동은 엄마가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하다는 점.. 약 절반 정도의 엄마가 3세 미만의 아동을 직접 돌봄. 이 기간 동안 커리어상의 불이익은 거의 전혀 없다고 보면 됨.

## 나. 영국 복지개혁과 여성노동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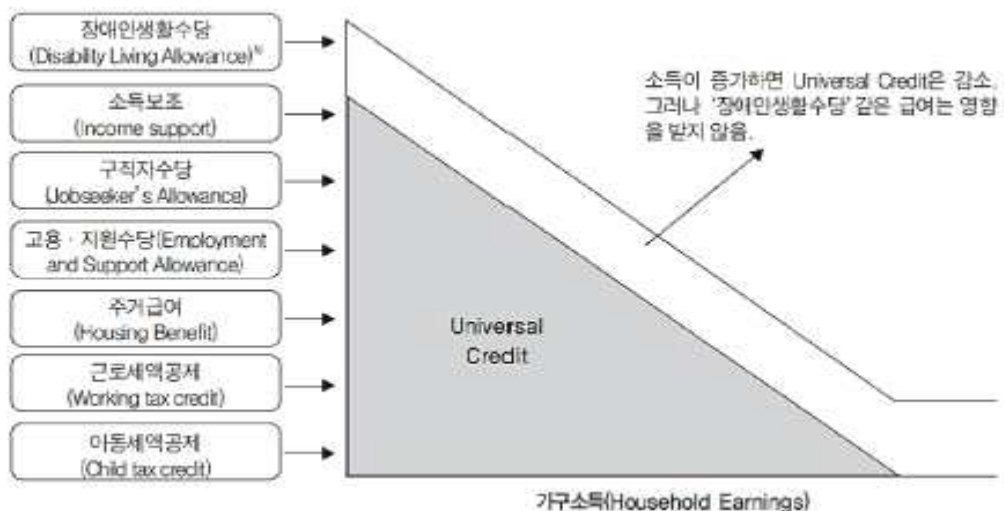
□ 인터뷰: James Browne(IFS), 김기태(버밍엄대학)

□ universal credit의 배경 및 맥락

- 배경: 영국 보수당 연립정부는 2007년 금융위기로 인해 늘어난 정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복지제도에 대한 개혁을 시작했으며, 2013년 3월 입법조치를 진행. 즉, 복지개혁의 전제에 깔린 가장 큰 목적은 정부부채 감소
- ‘welfare that work’의 맥락: 자산조사 강화, 급여 단순화(single working age benefit) --> 썸크탱크와 노동당정부에 의해 제기, 배우자의 activation+jobseeker’s allowance의 공동청구(joint claims)
  -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급여 개편
  - 기존 복지급여의 행정적 복잡성을 줄이고, 급여수혜율(take-up rate)를 높이려는 것도 주요 목적.

□ 영국 복지개혁의 주요 내용

- 다양한 복지급여 지원방식을 통합적 급여방식(Universal benefit)으로 전환하며, 근로인센티브를 강화
  - 영국 정부는 기존에 별도로 지급되었던 복지급여 6개를 통합하여 하나의 급여 제공하는 Universal Credit 제도를 도입



- 여기에는 기존 복지급여 이외에 세액공제를 포함하고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급여와 세액공제의 점감율을 65%로 단일화 함
- 이 경우 소득보조 및 구직자수당 수급는 근로를 할 경우 100% 급여가 줄어들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낮추었다면 점감율을 65%로 함으로써 일을 통한 급여 삭감율을 줄여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봄

□ universal credit하에서, 단일한 자산조사 급여가 현재 존재하는 거의 모든 급여. 여성의 재정적 독립성 저하 우려. 유니버설 크레딧은 전통적인 ‘남성가부장모델’의 부활이라는 비판

- 아동수당과 양육수당(carer's allowance)은 현재와 같이 유니버설 크레딧 외부에 유지
- 주로 엄마들에게 주어지는 child tax credits은 유니버설 그레딧에 통합. 이전에는 child tax credit은 주양육자, 주로 엄마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지만, 단일한 유니버설 크레딧 하에서는 급여 전체가 누가의 통장으로 들어올지를 결정해야 함. 주로 남성 배우자의 통장으로 들어올 가능성(근로연계성 때문에). 이로 인해 여성의 독립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여성계의 비판..
- 최근 Within Household Inequality and Public Policy 연구에서도 독립소득이 중요성 피력. 유니버설 크레딧 하에서는 여성의 종속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우려
- 남편이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상당수가 추가적인 고용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이 상당히 감소. 개별적인 비자산조사 지원 영역이 감소함으로써, 유니버설 크레딧은 배우자에 의존적인 권리로부터 급여를 얻게될 가능성. 부부가 독자적인 급여를 확보할 수 없고, 단일하게 급여를 확보할 수 밖에 없게 됨. 1인소득자가구의 경우 근로인센티브가 높아질 수 있지만, 맞벌이가구의 부소득자 근로유인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비판..
- 유니버설 크레딧은 부소득자가 일하든지 말든지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를 일/가정 균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간주..
- Insitute for Fiscal Studies는 현 시스템 하에서보다 유니버설 크레딧을 실시할 경우 부소득자의 단위당 급여 손실이 훨씬 클 것이라고 확신
- 아동을 위한 돈이라는 라벨이 붙지 않음으로써 아동에게 덜 지출될 소지?

□ 특히, 한부모의 급여 삭감 우려..경제불황으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한부모 가정

의 아동들이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으로 우려.

- IFS는 급여체계 개편으로 인해 40여만명의 아동이 추가적으로 상대빈곤에 빠질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 이는 2020년까지 아동빈곤을 감소시킬 것이라던 영국 정부의 계획에 타격.
- 현재 주당 68파운드 미만의 한부모가정 아동(약 150,000명)의 상황이 악화될 것이며, 추가적으로 250,000명의 아동이 더 빈곤해질 것으로 우려. 유니버설 크레딧 하에서는 현재도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한부모가정의 소득을 최대 2,500파운드까지 더 하락시킬 것으로 추정(Save the Children이라는 단체에서 추정). 빈곤 관련 단체들은 이들에 대해 더 관대한 철회율(taper rate)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일부 사람들은 변화로 인해 이득을 보겠지만,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워킹맘들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
- 그러나 DWP는 현재 60만에 이르는 한부모가구는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일할 유인이 더 생길 것이고 일할수록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음. 또한 일하는 엄마들에 대한 보육지원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

□ 노동당 정부하에서 실시되었던 New-deal의 대부분은 보수당 정부하에서 민간사업자에게 contracting-out됨.

- 효과가 많이 저하되었다는 평가.. 아직은 평가가 시기상조이나, 경기침체로 노동수요가 적어진 것도 효과성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
- 2009년부터 아동이 없는 부부의 경우 Jobseeker's allowance를 청구할 때 부부가 함께 청구해야 함. 즉, 이 말은 두 사람 다 일하지 않는 경우 둘 다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 두 사람이 한 양식에 청구서를 작성하고 관련 변화를 보고할 의무.
  - 모두 New Jobseeker Interview에 참석하고, 개별 동의서에 서명해야 함.

□ 여성 비친화적인 이러한 정책이 최근 보수연합에서 여성지지율 하락과 무관치 않을 것..